**2015 통일실천지도자대회**

**대한민국 서울 63 빌딩 그랜드 볼룸, 2015년 10월 8일**

문현진 의장

제가 오늘 영어로 원고를 준비했는데 오랜 가족을 만난 것 같아서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한국말이 조금 모자랍니다. 가끔 영어를 사용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오늘 정말로 감회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의 비전은 저만 꾸는 꿈이 아니고, 제 선친과 종증조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생각해보면 전체 한국 국민들도 그런 역사가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이 통일은 우리에게 관념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20101년에 통일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한국에 와서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지도자들 다 만나봤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기업가들, NGO 지도자들, 학자 등 많은 사람들 만나 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통일’은 옛날 쟁점이고, 요즘 국민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이든 분들은 관심 있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 기반 만들려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제 선친과 우리 문씨 가문은 하나님께서 한국과 한민족에게 특별한 명령과 사명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한국 역사 공부하면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홍익인간 비전은 옛날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준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은 얼만큼 기쁘고 깊은 내용입니까? 저는 작년에 책 썼는데 거기에서 홍익인간에 대해 많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모든 역사에 대해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대문명 중에서 오직 한 나라만 정말 높은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비전과 철학은 홍익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서양사람들의 사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은 서양에서 시작했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시아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특히,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이라는 점에서 보면 서양보다 뒤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자국민의 존엄성만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존엄성을 인정하며 삶의 고귀한 이상을 성취하려는 유일한 나라가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제가 주관하는 행사나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특별히 인권과 근본적 자유라는 관점에서 홍익인간의 비전을 설명하고 미국이 대표하는 가치들에 대해 왜 한국이 공감하는지를 이야기하면 한 사람 예외 없이 놀라와 합니다. 그들이 놀라와 하는 것은 아시아의 심장에 위치한 고대 문명에서 5,000년 전에 이런 철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리안 드림 책을 저술할 때 세계인들, 그 중에서도 서양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이 사상을 많은 외국 저명인사들에게 알려주면 모두가 감동을 받고 놀라와 합니다.

심지어 이번 포럼에 참석한 인도에서 가장 큰 언론그룹의 회장이 한국의 홍익인간 비전이 문명사에 기여하는 바를 인식하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자유와 인권의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에 대한 소견을 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 신문에 그 글을 실을 뿐만 아니라 2억5천만명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의 방송을 통해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홍익인간 사상은 그냥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만 감동을 주는 것 이 아니고, 전세계 인류들이 들으면 감동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시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통일 문제가 냉전시대의 틀에 빠져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 한국 국민들, 남과 북이 하나될 수 있고, 전세계가 우리 나라를 도와주고 통일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 답은 홍익인간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제가 제시한 그 비전은 바로 코리안 드림입니다. 코리안 드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이루는 희망과 약속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곤경에 처한 인류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리더십을 찾고 있는 아시아와 전세계인을 위한 희망과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큰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큰 꿈을 꾸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리안 드림의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이 코리안 드림의 주인 되면, 북한이 따라올 것입니다. 북한이 따라오면 남북통일은 올 것입니다. 남북통일 오면 전세계가 다 한국의 사례를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100퍼센트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리안 드림의 주인입니다. 저는 제 책, 코리안 드림의 첫 장을 칭기스칸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여러분들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국민들을 대표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아마 한국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민주주의에서 정치지도자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먼저 국민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국민들이 움직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꿈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기반이 크거나 작거나 이 통일운동을 위해서 큰 꿈을 꾸면 정말로 큰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세요? 안 들립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네] 그것을 믿으세요? [네]

그런 희망을 갖고 그런 불타는 정신을 갖고 나가시면 전체 한국, 북과 남을 흔들 것입니다. 커다란 해일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